
동북아 경제거점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토론 종합

1. 동북아 경제거점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

경제정책에도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역할 분담체제의 정립이 필요

- 동북아 경제거점 도시 서울이라는 용어는 아주 발전된 용어임
 - 동북아 중심국가에서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로, 다시 동북아 경제거점 도시로 바뀌었는데 동북아 경제거점 도시라는 용어는 아주 발전된 것
 - 허브의 개념은 국가라기보다는 거점의 개념에 더 가까운 것으로 지리적 개념과 지역적 개념의 혼합임
 - 정부의 동북아 중심이라는 논의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, 중앙정부는 시장 자유화, 규제완화의 역할에 국한하고, 지방정부와 분업체제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함

수도권의 경쟁력 확보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짐

- 수도이전 논의와 동북아 경제거점 논의는 다소 일관적이지 못함
 - 수도이전을 한 독일, 미국 등은 이들이 사전에 분권체제를 확립하고 있었고, 연방제라는 점에서 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
 - 한국의 관행과 한국의 정부-기업 관계에서 수도이전 후에도 경인지역의 경제력이 잘 유지·발전될 수 있을지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함
-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은 서울과 지방간의 경쟁·비교의 제로섬 게임에 머무르고 있음
 - 현재 우리는 외국과의 경쟁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윈-윈 할 수 있는 게임으로 바뀌어져야 함

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

- 외국기업의 유치보다 국내기업의 해외 이탈을 막는 방안에 주력
 - 외국의 기업유치 전략은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도 많이 있으며, 동남아 국가들도 우리나라보다 더 매력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음
 -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인프라나 클러스터 정립에 대한 논의보다 우선 우리 기업의 외국이탈을 막는 방법부터 고려하는 것이 선결 과제
- 대기업의 횡포는 글로벌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으므로, 중소기업이 주요한 추진체로 기능하고 외국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루도록 서울시가 도와주어야 IT산업이 성장할 수 있음

물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

- 물류의 중요성 인식
 - 동북아 경제거점 도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물류는 매우 중요하며, 따라서 경인지역 물류기지의 배후도시로서 서울의 역할이 중요함
 - 물류의 개념은 단지 물건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에 대한 부가가치사업(관리, 연결서비스)이 더 가미된 것이므로, DHL, 페덱스와 같은 물류회사가 서울에 입지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

2. 동북아 금융거점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

금융 선진화는 동북아 금융허브의 조건

- 향후 금융수요의 폭발적 증가
 - 동북아 지역에서 향후 5년 이내에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 전망되므로 금융허브 건설은 필수불가결함
- 금융관련 규제제도의 투명성과 국제적 정합성의 제고
 -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무엇보다 금융관련 규제제도의 투명성과 국제적 정합성 제고의 노력이 필요함
 - 특히 다양한 금융상품을 구비한 시장이 출현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원칙적 규제·예외적 허용체계(포지티브 시스템)에서 원칙적 허용·예외적 규제체계(네거티브 시스템)로 바꾸어야 함
- 구체적 청사진의 제시
 - 금융시장별로 비교우위 분야를 설정하고 중장기 목표 및 발전을 위한 단계별 전략 우선순위가 시급히 결정되어야 함

금융허브 건설을 위한 과제

- 서울의 영업환경, 생활환경의 경쟁력 제고
 - 서울은 영업환경, 생활환경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이는 시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함.
 - 즉 정부가 구상 중인 경제자유구역에 서울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특구 내 외국인 전용 주택, 학교, 병원 등의 생활시설 뿐 아니라 세금,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영업환경 측면에서도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

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

○ 매력적인 유치조건의 제시

- 서울이 상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외환중개 서비스, 법률 서비스, 회계 및 컨설팅 서비스, 신용 평가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의 개방을 앞당겨 선진화된 영업환경을 제시

○ 금융 전문인력의 육성

- 상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위를 지니고 있는 자금융동화, 일부 국제 금융 업무에서 계속 우위를 지켜나가도록 금융연수원 등 교육훈련기관을 빠르게 정비·확충하고, 외국 금융관련 유명대학들의 아시아 캠퍼스를 유치

○ 경쟁만이 아니라 협력적 전략도 병행

- 노동집약적인 프로세싱 같은 업무는 우위를 지닌 국가들과 경쟁이 아닌 협조를 통한 파트너십의 관계형성이 상호 발전적 전략임

3. 동북아 IT 거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

서울의 비교우위를 고려하면서 동북아 IT 허브 구상

○ 서울의 강점을 더욱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전략의 채택

- 서울은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IT기업에게 첨단 기술과 서비스의 선도적인 테스트 마켓으로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음
- 이러한 강점을 최대한 살리되 주변국가를 고려하면서 동북아 IT 허브를 건설해야 함

- 우리나라의 거시적 시장상황과 IT분야의 취약성을 인식해야 함
 - 중국은 저렴한 임금,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「Golden Project」 등 강력한 IT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일본은 거대한 자본을 보유하고 「e-Japan」, 「Asia Broadband Program」을 추진 중임
 -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서는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임금이 비싸며, 일본과 비교하여 노사관계가 불안하고 핵문제 등 안보 우려로 외국인이 투자를 꺼릴 가능성이 높음
 - 정보네트워크 정비에 걸맞는 트래픽·스토리지 허브로서의 역할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, 디지털 콘텐츠, S/W 등 IT서비스 분야가 상대적으로 빈약하고, IT R&D 투자규모가 우수 선진기업의 1/5 수준에 불과하며 첨단기술도 부족함

지하철 2호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IT 클러스터를 연계한 서울 IT그린라인 구축

- 지하철 2호선을 따라 형성된 IT 클러스터를 연계한 서울 IT 그린라인을 구축하고 홍보하도록 함
 - IT 제조업 등은 상해에 비해 비교우위가 없으므로, 한국의 IT 인프라를 홍보하여 다국적 IT기업의 R&D 센터 유치에 중점을 두어야 함
- 테헤란 밸리의 성장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함
 - 테헤란 밸리의 성장과정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축적해 주고, 외국과의 교류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, 기존에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더욱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
 - 새로운 지역에 IT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기존 성장 지역을 집중 육성하고 장소의 브랜드 파워를 키우는 전략을 채택해야 함

- 예술가-기술자-자본가간 컨소시엄인 IT 트라이앵글 구축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함
- 휴먼 네트워크의 형성
 - IT관련 기업들이 여러 단체로 분산되기 보다 하나의 모임체를 형성하고, 여러 외국 단체들까지 함께 모일 수 있는 회합의 자리를 서울시가 형성하고 지원

다국적 IT기업의 R&D 센터 유치 전략

- 서울시와 정통부 등이 공동으로 IT R&D센터 유치노력을 해야 하며, 서울시는 관련 행정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
 - 서울시에서 우수한 IT인력에 대한 선발관리 및 영어교육 등이 필요
 - 외국기업들에 대하여 상암 DMC 등을 활용한 입지 및 건물확보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방안 마련
- 첨단 R&D 환경을 제공하고, 연구 거점지에서의 국제표준화 회의개최, 아시아 주요국가의 표준협력 강화 등을 통해 IT 표준화 중심지로 발전

한·중·일 3국의 조정자로서의 입지활용방안

- 서울에 통신망, 트래픽이 집중되어 정보가 생산·저장·분배되는 중심지(Digital Hub) 추구
- 공개 S/W 활성화를 통해 한중일 3국의 공통 이해관계 반영
- 서울시에 'IT 국제협력센터'를 설치하여 각국의 동향과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·연구하고,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모색

토론자

- 이상진 |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과장
- 이영선 |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장
- 이장영 |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
- 조현정 | 비트컴퓨터 사장
- 한민구 | 서울대학교 공대 학장

내용정리 | 김혜정 ·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위촉연구원
feelfree17@sdi.re.kr

서울경제 브리프 제10호와 제11호는 지난 6월 27일(금), 서울특별시청 태평홀에서 개최한 “『동북아 거점도시 서울』을 만들기 위한 심포지움”의 내용을 요약·편집하여 게재합니다.